

완도군, 전북 산업 안정화 위해 가두리 감축한다!

생산량 증가산지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전북산업 구조조정 도비 포함 총 10억 투입, 올해 노획읍과 보길면 대상 추진

완도군에서는 전북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등 전북 산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 가두리 감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도군은 '24년 기준 2,303개 어가, 3,186ha 면적에서 전북을 생산 중이며, 지난해 생산량은 16,341톤으로 전국 생산량 대비 약 70%를 차지할 만큼 지역의 중추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전북 종자 개량 및 시장의 작은 크기의 전북 선호 등으로 2015년 전국 전북 생산량 10,494톤에서 2024년 23,137톤까지 급증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해 지면서 1kg 기준 20미 가격이 '23년 말 22,000원에서 지난 4월 초 16,000원까지 하락했다.

여름철에는 홍수 출하로 가격이 떨어지다 가을에는 회복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가을부터 가격 회복이 되지 않고 하락세가 지속돼 양식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업인들과 전북 생산량을 줄여 제값을 받고 팔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군에서는 전북 가두리 감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전북 가두리 감축 사업은 해상의 전북 가두리를 육지로 옮겨 철거·해체 후 일부 자재는 재활용하고 폐기물은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 사업 대상지는 노획읍과 보길면의 전북 가두리 4,385칸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24일 전북 가두리 감축 사업이 한창인 노획읍 당산리를 찾아 폭염 속에서도 작업에 나선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 회원들과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신우철 군수는 "올해는 전북을 많이 키우는 노획, 보길을 대상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전북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전북 가두리 철거·해체 작업에 나선 김삼호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장은 "전북 가두리를 감축한다는 것은 어업인들이 삶의 기반을 내놓는 어려운 일이지만 전북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완도/장선우 기자

2인 이상이 영암 관광 인증하면 최대 24만원 지급 '여행 원플러스원' 사업... 지역화폐 월출페이로 지급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말일부터 올해 말까지 2인 이상 관광객에게 최대 24만원의 지역화폐 등을 주는 '영암여행 원플러스원(1+1)'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관광객의 경제 부담을 낮추고 재방문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마련된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영암군은 방문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10만원의 모바일 지역화폐 '월출페이'와 영암물 포인트 2만원을 지급하고, 디지털영암군민에 가입하는 관광객에게는 3,000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달 3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사업 참여·인증은 온라인 '영암 여행 원플러스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구축 막바지 작업 중인 영암군은 사업 시행과 함께 홈페이지도 오픈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이 아닌 관광객 2인 이상이 영암 여행 7일 이내에 이 홈페이지에 정산 신청하면, 영암군은 3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올해 12월 26일까지가 사용 유효기간이다.

사업 참여 인증에는 관광객 2인 이상의 신분증 사진, 월출산국립공원·도갑사·구림마을 등 영암 관광지 방문 사진, 10만원 이상 영암 소비 증빙자료 등록이 필요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1+1 영암 여행을 지원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영암군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동시에 관광객이 영암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암 여행 원플러스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관광과 관광정책팀(061-470-2492)에서 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양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에서 '나만의 속도로, 여름 걷기 습관 ON' 8월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 탭에서 '광양시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스마트폰을 지니고 걸으면 걸음 수에 따라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

광양시, '나만의 속도로, 여름 걷기 습관 ON' 워크온 통해 시민 건강증진 유도... 목표 걸음 달성자 500명 혜택

참여자는 1걸음당 1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8천 마일리지가 누적된다. 기간 내 총 20만 보를 걸으면 20만 마일리지가 쌓여 모바일상품권 5천 원권 응모가 가능하다. 단, 광양시 지역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휴대전화의 위치 설정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한다. 시는 목표 걸음을 달성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반미순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낮 시간대의 무더운 시간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걷는 것이 좋다"며 "걷기 챌린지가 자신만의 속도로 즐겁게 걷는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일상 속 움직임을 늘리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매월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가입자는 9,674명이다. 걷기 챌린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797-3782)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의 생명과 농가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총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환풍기 설치 지원 사업을 긴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사 내 고온 환경이 가축의 스트레스 증가, 면역력 저하, 생산성 감소 및 폐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고흥군, 폭염 대응 축산농가 긴급 지원한다 스트레스 완화제, 환풍기 등 긴급 지원 3억 8천만 원 투입

에 따라 마련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폭염 대응책이다.

우선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우, 양돈, 가금 등 축종별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한다.

이 스트레스 완화제는 체온조절, 수분 전해질 보충, 소화 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어 폭염 시 가축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2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축사 환기시설(환풍기)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등록된 축산농가이며,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현장 확인과 선정심사를 거쳐 8월 중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폭염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예비비를 투입한 사례"라며,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곡성군, '로컬 콘텐츠 페스타' 참가... 고향사랑기부제 및 농특산물 집중 홍보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참가해 곡성의 지역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다고 28일 전했다.

곡성군은 이번 행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와, 온라인 쇼퍼블인 곡성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육과 농

는 주 상품인 조청과 된장의 판촉을 통해 곡성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로컬 콘텐츠 페스타 참가를 통해 곡성의 농특산물과 정책을 도시민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곡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지역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관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다양한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장성군, 청년들의 꿈 '전폭 지원' 청년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도

장성군이 민선8기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1학기분 학비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장성군이 지역 내 대학생 가정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분야 핵심사업이다.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 납부액을 학기당 200만 원 한도로 총 8학기분까지 지원한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2학기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은 총 950여 건에 이른다. 올해 1학기에도 260여 명의 장성대학생에게 약 4억 원의 학비를 지원했다.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은 김모 학생은 "장성군의 학비 지원 덕분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님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장성군민회관 인근 읍사가지(영천리 1486-4, 787-9)에 '청년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바닥면적 합계 약 583㎡ 규모, 2층 건물에 공유카페, 정보화교육장, 소회의실, 다목적홀, 일자리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초 무렵 개관할 계획이다.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도 희소식을 안겼다. 군은 지난 12월 391억 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돼 삼사·삼계면 일원에 공동육묘장, 스마트산지유통센터, 가공센터 등을 구축한다. 장성레몬, 아열대채소를 중심으로 청년농업의 성장과 단지화·규모화를 추진해 나간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청년은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 희망이 있는 미래 장성 건설의 주역"이라며 "지역청년들이 역량을 기르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